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6>]1914년 '제주도식물보고서' 발표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2.18.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5. 나카이(상) 제주도식물 첫 종합보고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 제주와 한국의 식물사에 나카이만큼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도 드물다. 식물의 보고인 제주도의 식물상을 1914년에 처음으로 종합 보고한 인물이 바로 나카이이다. 외국에서 제주도의 식물을 감정한 것도 나카이가 효시다. 나카이에 의해 제주도의 식물상이 최초로 정립된 것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촉탁연구원 신분으로 제주도와 우리나라 전역을 샅샅이 훑었다. 한반도의 부원(富源)조사가 목적이었다. 제주도의 식물 1백년의 역사는 사실상 나카이의 제주식물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카이는 그의 스승인 동경대 마쓰무라(松村) 교수의 말에 따라 한국식물연구에 본격 뛰어든다. 김문홍교수(제주대 생명과학과)는 “나카이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조선의 식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제주를 처음 방문한 191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주도 식물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제주도 식물의 잠재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식물과의 첫 인연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2점의 제주도 식물을 채집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치카와(市河三喜)가 채집품을 나카이에게 선보였다. 제주도의 식물이 외부로 처음 알려지게 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나카이는 당시 동경제국대학교에 재학중이었다. 1909년에 발간된 ‘조선의 식물지’(Flora Koreana) 제1권은 그 결과물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주도 식물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보고서로 보고 있다.

나카이는 이치카와 외에도 프랑스 출신의 타케, 포리 신부 등이 채집한 표본을 보고 감정에 제주를 포함한 한국의 식물 전반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키워갔다. 그는 1911년에 포리 신부집을 찾아가 한달여 동안 채집품을 감정했다. 포리는 1907년 제주에서 타케신부와 함께 다량의 식물을 채집한 인물.

1911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조사였던 이시도야 츠토무(石戸谷勉)가 채집한 5백여종과 제일고등보통학교 교사였던 모리 다메조(森 爲三) 등이 채집한 5백여종을 감정해 23종의 신종을 발표했다. 나카이는 그해 조선의 식물지 제2권을 보고하기에 이른다.

나카이가 한국의 식물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물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1928년 제주도에서 조선총독부 주최로 열린 ‘제주도 하계대학 강좌’ 발표회에서 이시도야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11년에 모리교수가 한라산에 오르고 다음해 내가 올라 산위에 삼림을 이루고 있는 전나무(구상나무)의 열매달린 나무표본을 갖고 와서 당시 조선식물을 연구하고 있던 동경대학의 나카이박사에게 감정을 해주도록 하였다”.

나카이가 처음 제주를 찾아 식물을 채집한 때는 1913년이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제주였다. 제주도 식물에 대한 그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 때 한달간 말을 타고 다니며 식물을 조사하고 채집한다. 그는 당시 서귀포 흥로성당 신부였던 타케와도 교우한다. 타케가 채집한 식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주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타케의 거처를 찾았다고 전해진다.

나카이는 약 한달간 제주 전도에 걸친 현지조사와 타케와 포리신부 등의 표본을 감정한 후 처음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가 바로 1914년에 발간된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로 제주도 식물에 대해 처음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제주도에 142과, 1317종(116변종)의 식물이 자생하며, 이 가운데 제주의 특산식물이 78종, 69변종으로 보고해 제주에 분포하는 식물의 10% 이상을 특산식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또 제주도의 식물대(植物帶)에 대해 그 분포상태에 따라 이를 해안식물대와 산지식물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각 식물대의 분포종도 보고했다.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산정부까지 제주도 식물의 수직분포 상태를 처음 밝힌 것이다. 나카이는 또 부록으로 북제주군 비양도의 식물도 조사해 72종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주는 물론 한국식물연구의 고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 그 이후 많은 식물학자들이 제주도의 식물을 대상으로 분류학, 형태학, 생태학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나카이는 그 후로도 수 차례 제주를 찾아 조사와 채집에 몰두했다.

[사진설명]본보가 최근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나카이의 생전 모습.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